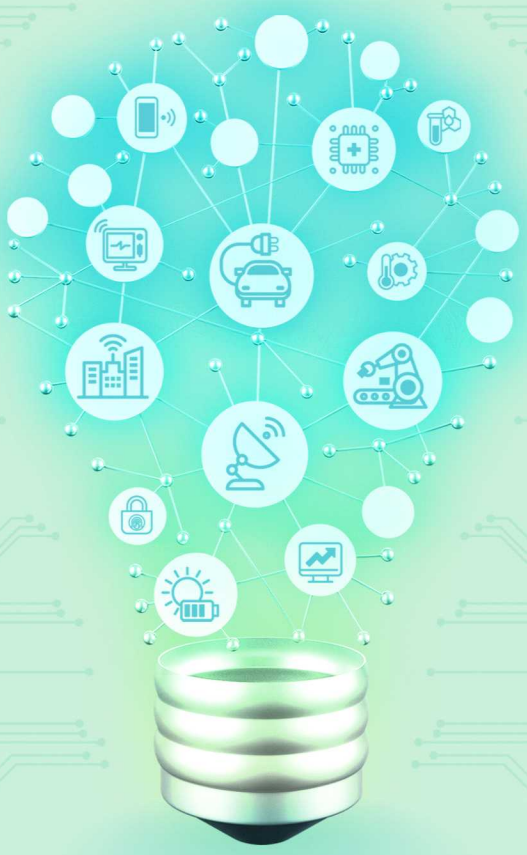
기술 2020-215

2020.10.29.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대한약품(023910)

제약/생명과학

요 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 성 자	임정진 책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의회

대한약품(023910)

수액제 등 완제의약품 제조·판매 전문 제약기업

기업정보(2020/07/31 기준)	
대표자	이윤우
설립일자	1963년 05월 11일
상장일자	1994년 11월 23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완제 의약품 제조업
주요제품	완제의약품 기초수액제

시세정보(2020/10/27 기준)	
현재가(원)	29,4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764
발행주식수	6,000,000
52주 최고가(원)	47,700
52주 최저가(원)	21,950
외국인지분율	14.46%
주요주주	이윤우, 이승영

■ 국내 최초 수액제 개발 족적을 남긴 수액제 전문기업

대한약품은 해방 이후 조선약품화학공업사를 전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플라스틱 용기 수액제를 생산한 기업이다. 1990년 중반부터 독일 등에서 선진 수액제 생산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기초수액제를 포함한 다양한 특수수액제를 개발·제품화하는 등 수액제 전문기업으로서 성장의 기틀을 다졌다. 현재까지도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창업주의 경영철학 아래 수액제 중심의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주요제품인 수액제는 설립 이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통해 선구적인 제품들을 생산해 냄으로써 국내 선두기업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 자동화 KGMP 생산 시설과 13개 권역권 영업 네트워크 보유

대한약품은 2014년 신공장완공 후 내용액제, 외용액제, 주사제 제형군에 대한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확보하여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며, 대규모 자동화 생산공장을 통하여 1일 59만 병의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대량생산, 보관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수액BAG 제품 자동화 생산라인을 추가하여 높은 원가 절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탄탄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병·의원에 수액제 등을 공급함으로써 급변하는 의료시장 환경 속에도 매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다수의 지식재산권 보유

연구개발은 1988년 설립한 중앙연구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수액제의 원료합성연구, 수액용기 등의 기능향상연구, 제제연구를 주요 분야로 하고 있다. 현재 조직은 크게 제제연구, 제품연구, 연구기획팀으로 나뉘어 제네릭의약품 등의 제제연구, 제품개선, 제형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골다공증치료 주사제, 흡인형 천식치료제,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 등의 개발로 연구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관련 다수의 연구개발 실적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구분 /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1,444.4	3.6	322.5	22.3	248.3	17.2	23.8	13.5	59.1	4,139	19,313	9.9	2.1
2018	1,587.2	9.9	362.2	22.8	285.2	18.0	22.3	12.2	67.3	4,753	23,394	8.1	1.6
2019	1,687.6	6.3	336.4	19.9	281.7	16.7	18.3	찾기	48.0	4,694	27,796	6.7	1.1

기업경쟁력

수액제 제조·판매에 특화

■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용기 수액제를 생산**
- 200여 종의 전문의약품(수액제) 및 일반의약품 생산

■ **전국영업망을 통한 안정적 매출처 확보**
- 서울 및 지방 6대 도시와 경기남부권역 및 강원 동부지역을 아우르는 총 13개 영업 지점 운영

■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한 수액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 확보**

수액제 관련 지식재산권

■ **주사액 혼합 제조용 소켓 및 이를 포함하는 수액 제품**

■ **위생안전 보증형 약병 접속소켓과 이를 포함하는 수액 제품**

■ **약화사고 방지를 위한 주사액 제조용 안전 소켓 및 수액 키트**

■ **약병 접속 소켓**

■ **위생안전 보증형 약병 접속 소켓과 이를 포함하는 수액 제품**

-수액 및 수액 용기 관련 다수의 특허 보유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수액제 제품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 약병 소켓, 접속 소켓, 안전캡, 수액 키트, 수액BAG 등 용도에 맞는 수액 및 약액 설계를 하여 제품생산

■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수액제의 자동화 생산 시스템 구축**
- 8,000평 규모의 공장 내 자동화 설비를 통한 일 59만 병의 수액제 및 주사제 생산

주요제품

전문의약품

기초수액제	영양수액제	특수수액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생리식염수	렌즈세정제

시장경쟁력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년도	시장 규모	성장률
2014년	9,830억 달러	연평균 4-7%▲
2018년	12,048억 달러	
2023년(E)	15,000억 달러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추이

년도	시장 규모	성장률
2015년	169,696억 원	연평균 3.6% ▲
2018년	211,054억 원	

국내 제네릭의약품 시장 규모 예측

년도	시장 수요	성장률
2015년	44,000억 원	연평균
2020년(E)	55,000억 원	1,800억 원 ▲

최근 변동사항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

■ **총판 제품의 주문 증가**
- 기관지 천식약의 주문제작

■ **하락 없는 꾸준한 매출 지속**
- 포도당 수액 등 기초수액제의 변함없는 시장 수요

■ **의약품 수출을 위한 지속적 해외 홍보활동**
- 수액제와 주사제 등의 수출지역 확대와 품목 다양화

연구개발 다각화

■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통한 수액제 이외의 연구 다각화**
- 골다공증치료 주사제(연구 시작 2020년)
- 천식치료제,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연구 시작 2020년)

Ⅰ. 기업현황

전통 있는 국내 수액제 대표 전문기업

대한약품은 설립 초기부터 전문의약품 가운데 수액제를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오랜 업력을 통한 제약시장 내 높은 인지도, 전국 13개의 영업점, 병·의원 담당 MR들의 현장영업 활동 등 다각화된 영업망과 비즈니스 모델을 펼쳐 수액제를 제공하고 있는 제약업체이다.

■ 개요

대한약품은 1945년 조선약품화학공업사라는 사명으로 주사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해외로부터 선진적인 수액제 생산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초수액제를 비롯한 다양한 특수수액제 제조가 가능한 수액제 종합회사로 성장하였다. 이후 첨단제조시설 및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1994년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현재까지 원료합성, 생산기술, 제제연구 등을 지속하여 국내에서 수액제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글로벌 기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다. 대한약품은 현재(2020.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45길 3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77에 제조 시설이 갖춰진 8,000평 규모의 KGMP공장과 중앙연구소를 두고 운영중에 있으며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 710명이 근무 중에 있다[표 1].

표 1.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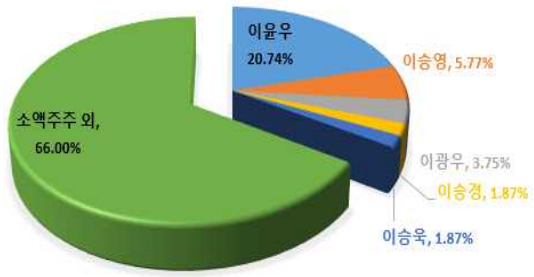
일자	연혁
2018	반월공단 토지(5,000평) 및 건물(9,500평) 매입 등 추가 대지면적 확보
2017	반월공단 토지(2,500평) 매입
2016	수액BAG제품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
2014	8,000평 규모의 KGMP공장 및 자동화 창고 완공
1988	중앙연구소 설립
1994	코스닥시장 상장
1963	대한약품 법인 설립
1945	조선약품화학공업사 설립

*출처: 반기보고서(2020), 대한약품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주요주주 현황

최대주주는 이윤우로 대한약품 대표이사이며 지분 20.74%를 보유하고 있다. 이윤우 대표이사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선친인 고 이인실 회장의 유지를 이어 대한약품 경영을 맡은 이래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대표이사 외 이승영(자, 5.77%)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합계 지분율은 약 35%로 확인된다[그림 1].

그림 1. 주요주주 지분율 현황



주요주주	지분율(%)
이윤우	20.74
이승영	5.77
이광우	3.75
이승경	1.87
이승욱	1.87
소액주주 외	66.00
합계	**100.00**

*출처: 반기보고서(2020)

■ 주요경영 정보 및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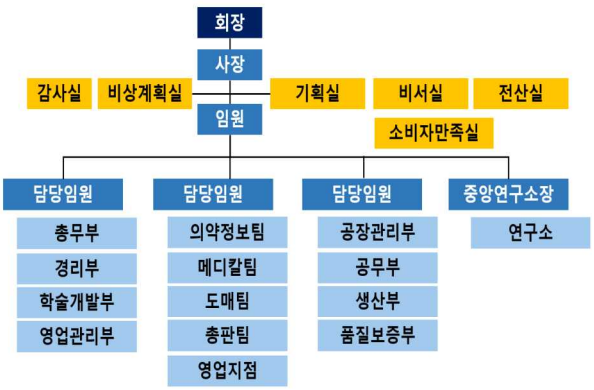
동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이념 하에 [그림 2]와 같은 경영이념을 수립하였으며 체계적으로 실천하고자 유기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림 2.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5대 경영이념

*출처: 대한약품 홈페이지

2020년 06월 30일 기준 상근 중인 등기임원은 대표이사 이윤우(경영)를 중심으로 영업, 기획, 감사, 생산, 품질관리, 회계 등에 사내이사를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3. 각 사업 부문 조직도 및 연구개발 부서(연구소) 구성



구분	팀명	인원	주요 업무
개발부	제제 연구팀	5	의약품 기술·제형 연구
	제품 연구팀	2	신규 제품 개발 연구
	연구 기획팀	1	특허 관리, 신규 과제 기획 등

*출처: 반기보고서(2020)

조직은 크게 관리, 영업, 생산, 연구개발로 구분된다. 먼저 관리는 총무부 · 경리부 · 학술개발부 · 영업관리부, 영업은 의약정보팀 · 매티칼팀 · 도매팀 · 총판팀 · 마케팅부 · 영업지점, 생산은 공장관리부 · 공무부 · 생산부 · 품질보증부, 연구개발은 연구소로 구성된다. 각각의 부서는 다시 세분화하여 복수의 과로 나누어지며, 담당 임원을 필두로 임원과 임직원들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개발부 내 연구소에서 상시 근무 중인 8명의 기술인력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제품개선 및 제넥릭 제제연구를 진행 중이며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림 3].

■ 주요제품 및 생산역량

동사의 사업부문은 완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단일 부문이다. 종합 완제 의약품 회사로서 200여 종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수액제, 주사제, 경구제, 외용제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그림 4].

그림 4. 주요제품 현황

*출처: 대한약품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주력 제품은 전문의약품 가운데 수액제로 2020년 반기보고서 기준 제품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5% 포도당주사 외 수액제품이 전체 7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V-K1 외 앰플 및 바이알 제품이 20.2%, 바네포연고 외 기타 제품이 1.5%로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표 2]. 동사는 꾸준히 제넥릭 제품 및 제제연구 완료 제품을 새롭게 시장에 출시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 대비 100억 원대의 매출성장을 이루고 있다. 올해 2020년 상반기에 826.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2019년 반기매출 814.4억 원을 넘어선 것이 확인되어 전체매출 역시 전년 대비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표 2].

표 2. 주요제품의 판매현황 및 비중(2018-2020년)(단위: 백만 원)

사업부문	품목	주요상품	2020 (반기)	2019년	2018년
제조의약품	수액제품	5%포도당주사 외	64,349	131,706	127,454
	앰플 및 바이알	V-K1 외	16,733	34,066	27,632
	기타제품	바네포연고 외	1,271	2,282	2,971
	비율(%)		99.6%	99.6%	99.6%
기타매출	시험검사 외	-	337	707	663
	비율(%)		0.4%	0.4%	0.4%
합계			82,690	168,761	158,720

*출처: 반기보고서(2020)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품질관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77에 소재하는 공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의약품 생산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표 3]. 2020년 반기보고서 기준 반월공장에서 일 평균 59만 병의 수액제, 앰플제, 바이알 등의 의약품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금액 환산 시 567.1억 원으로 97.81%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의약품 생산능력 및 생산량(단위: 백만 원)

사업부문	품목(생산공장)	생산능력/생산량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제조 의약품	수액제품 (반월공장)	생산능력	55,000	110,000	85,000
		생산실적	45,780	85,837	82,486
	앰플 및 바이알 (반월공장)	생산능력	10,000	20,000	18,000
		생산실적	9,013	16,899	16,239
	기타제품 (반월공장)	생산능력	5,000	10,000	10,000
		생산실적	1,921	3,601	3,460
합계		생산실적	56,714	106,337	102,185

-산출기준: 1일 생산능력(590,000병) *20.3일*6개월
-산출방법: 1일 생산능력*근무시간(9시간)*월평균작업일수(20.3일)*년간작업일수(6개월)

*출처: 반기보고서(2020)

■ 사업의 수익구조

대한약품은 병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수액제와 앰플제, 환자들의 비경구 영양보충을 위한 영양수액제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약외품 부문에서도 렌즈세척액, 다용도 세척액 등을 약국을 통하여 판매하며 그 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동남아국가를 시작으로 수출에서도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 다양한 위수탁 사업을 통해 매출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제조된 의약품들은 병·의원 담당 MR(Medical Representative)들의 현장영업 활동을 통한 주문 판매를 하거나 납품 도매상의 주문을 통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지방 6대 도시와 경기남부권역 및 강원동부지역을 아우르는 총 13개 영업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 서울/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영남권, 호서지역을 커버하는 OTC(Over The Counter) 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표 4].

표 4. 영업 활동

구분	내용
판매조직	● 병의원 담당 MR들의 현장영업 활동을 통한 주문 판매 ● 서울 및 지방 6대 도시와 경기남부권역 및 강원동부지역 등 총 13개 영업 지점 ● 서울/수도권 지역과 이외 지역을 커버하는 OTC 판매 조직 운영 ● B2B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통해 CMO 사업 운영
판매경로	● 종합병원: 입찰 및 DC를 통한 판매 ● 일반 병원,의원: 주문을 통한 판매 ● 약국 :OTC 도매상을 통한 판매
판매방법 및 조건	● 의약품 도매상 및 병원, 약국의 주문에 의한 현금 및 외상
판매전략	●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매출 기반 신제품 출시를 통한 매출 다각화 ● 경쟁력 있는 영업 MR들의 활동을 통한 거래라인 확대

*출처: 반기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Ⅱ. 시장 동향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의약품 시장

대한약품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품은 수액제, 주사제 등 다양한 형태이며, 품목은 200여 종이다. 따라서 산업분석은 국내외 의약품 시장을 주요 분석 목표 시장으로 설정하였다.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약품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제약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 제약산업

제약산업은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과 판매에서부터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기술집약도가 높고 신제품 개발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성장 산업이다. 제약산업에서 제조업 부문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완제품 중심, 소량생산 체제, 고부가가치, 경기변동에 비탄력적, 정부규제산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표 5].

표 5. 제약산업의 특징

특징	내용
내수용 완제품 중심	● 초기개발비를 투자하여 신약의 원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원료의 합성으로 최종완제품 생산이 중심인 산업
다종 소량생산 체제의 산업	● 질병의 다종다양성으로 인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산업으로 시장이 극히 세분화 되어 있음
고부가가치 산업	● 의약물질 특허, 제조기술 특허 등 각종 특허권 획득과 시장독점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산업	● 인간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하여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여주며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계절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음
정부규제 산업	● 제약은 인간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므로 생산, 판매, 취급, 수출입 유통 등 제반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통제하는 산업

*출처: 제약산업보고서 KISLINE(201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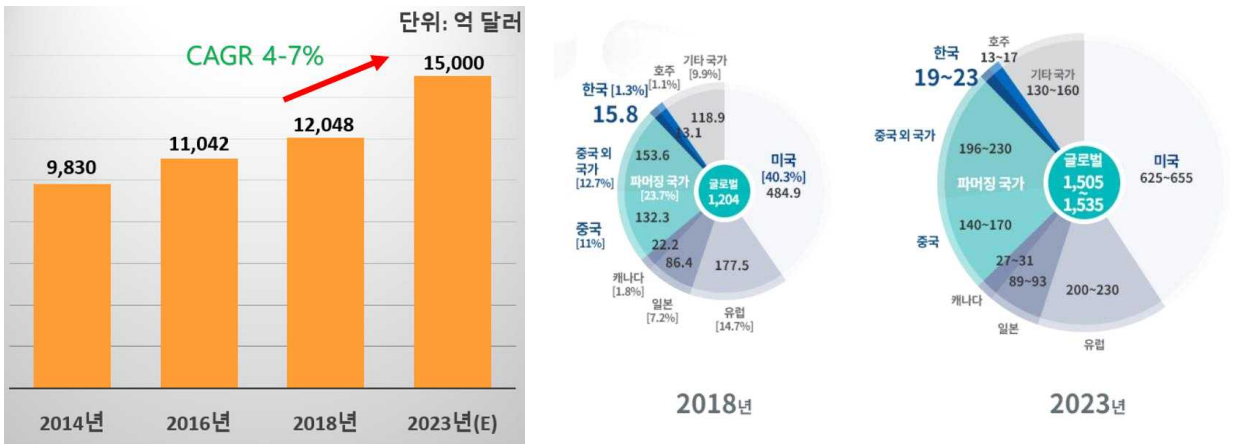
동사는 완제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련 사업을 통해 매출을 시현 하고 있다. 제품은 일반/전문의약품으로 수액제, 주사제, 경구제, 외용제 등 다양한 형태이며, 품목은 200여 종이다. 따라서 산업분석은 일반/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의약품 산업과 세부적으로 인간의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캡슐,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인 세계 및 국내 의약품 시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세계 의약품 시장은 최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경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전 세계 질병의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소득증대 및 생활패턴의 변화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의료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개괄(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의약품 시장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이후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에는 약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국가별 의약품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미국은 484.9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유럽과 중국이 각각 14.7%, 11%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5]. 신약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의 증가 등으로 점차 세계적으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공조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신약들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 의약품의 비중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세계 의약품 시장과 국가별 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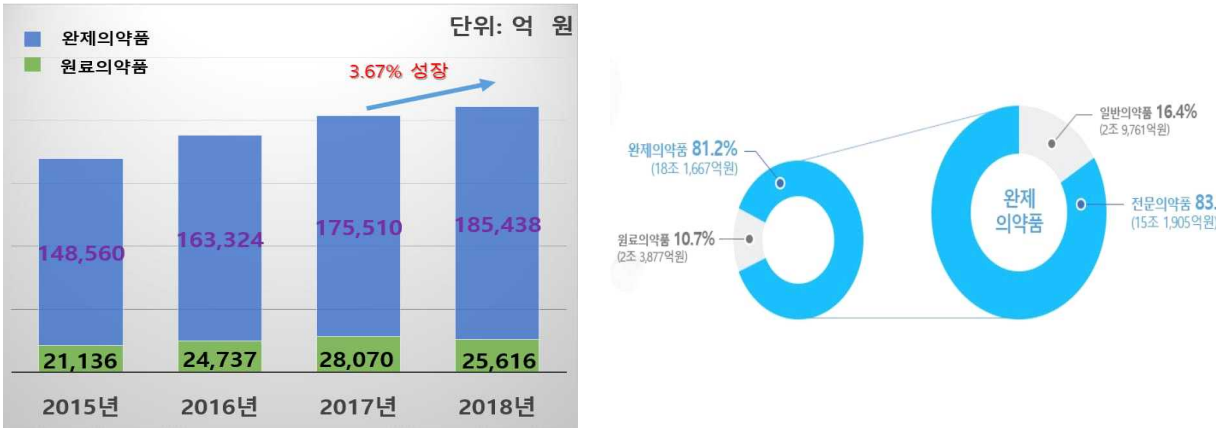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or.kr, 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2019년 KISLINE 제약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21조 1천 억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이는 고령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고혈압치료제, 치매치료제, 골관절염 치료제 등의 생산이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미국 등의 선진국으로 의약품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의약품 가운데 원료의약품은 10.7%의 비중을 보여주었으며 완제의약품은 81.2%의 비율로 나타났다. 2018년 생산된 전문의약품은 1만 4,597 품목, 일반의약품은 5,334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완제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은 2조 9천억 원(16.4%) 규모였으며 전문의약품은 15조 1천 억원(83.6%) 규모로 조사되었다[그림 6].

그림 6.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제약산업보고서 KISLINE(2019),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or.kr, 2020),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제네릭 의약품 시장

한편, 의약품 산업에서 높은 개발비용과 경제적 특수 기간 제한 등 신약개발 리스크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물질 의약품으로서 특정 질병에 대한 최초의 약을 신약이라 하며, 이후 신약의 특허 만료로 독점권이 상실되어 약효 및 품질이 동등하게 제조된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이라 한다. 제약산업학 교재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 개발의 경우 신약개발과 비교할 때 투자기간 및 비용이 적게 들어 위험성이 높은 신약개발 보다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대한 경쟁이 과도화되고 있다[표 6].

표 6. 신약 및 제네릭 개발투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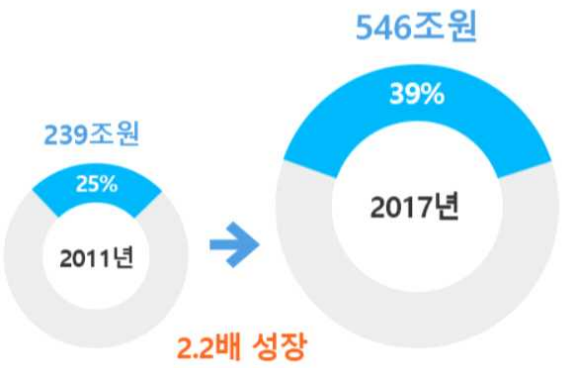
구분	신약개발	제네릭 의약품 개발
투자기간	10-20 년	3-6 년
투자비용	2,000-7,000 억 원	20-50 억 원
성공확률	0.02%	70%
장점	15-20 년 독점권 확보	투자 위험이 낮음
위험	대규모 개발 비용	과열 경쟁

*출처: 제약산업학 교재 참조,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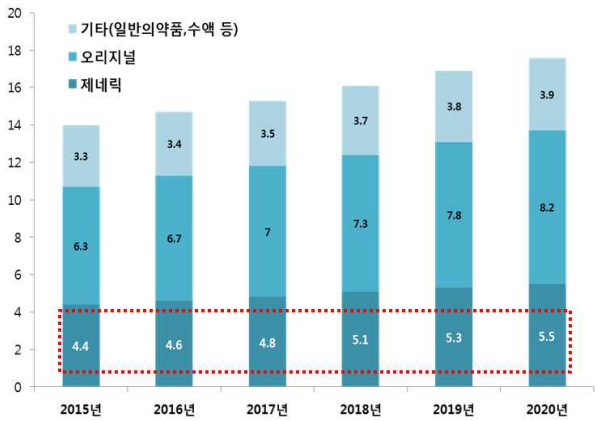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도 제네릭 의약품 시장 성장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GBI Research(Global Information Research)는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시장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보건산업진흥원 또한 2015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특허 만료가 예정된 의약품 규모가 약 2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약산업보고서(2019)에 따르면 세계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경우 2011년 239조 원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통해 2017년에는 546조 원 규모를 형성하여 2배 이상 성장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의약품 시장의 비중도 25%에서 39%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경우 2015년 4.4조 원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통해 2020년까지 5.5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7].

그림 7. 제네릭 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

세계 의약품 시장 중 제네릭 비중 추이



국내 의약품 시장(제네릭) 규모(단위: 조 원)



*출처:제약산업보고서 KISLINE(2019),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or.kr, 2020),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제약산업 동향

제약산업은 상위제약업체와 다국적 제약업체, 중소제약업체 등 약 800개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많은 업체의 시장참여로 공급과잉상태 및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 내 유한양행이 시장점유율 9.46%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녹십자, 종근당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8년 기준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기업들이 확대된 가운데 상장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외형은 크게 확대된 반면, 연간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약산업은 고령화 인구 및 만성질환의 자연증가로 의약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가운데 주요 제약사들의 개량·신약 개발을 통한 파이프라인 확보와 이에 따른 기술수출 증가 등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 전망된다. 2020년에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의 기술수출 및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유입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서 설명한 정부의 정책금융지원, 세제혜택 확대 등을 통한 신약개발 활성화 등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기술분석

자동화 설비의 수액제 생산공장과 중앙연구소를 통한 기술개발

대한약품의 반월공장에서는 현대화되고 자동화된 설비투자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종류의 수액제, 주사제 등을 생산해 내고 있다.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수액 및 수액제 용기를 설계·개발하여 제품화하였다. 다수의 제네릭 수액제 및 주사제의 제제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품의 품질향상을 꾀하고 있다. 최근 수액제 이외 치료용 조성물의 제제연구도 새롭게 시작하며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대한약품 제조의 핵심축: 반월공장

대한약품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액제, 주사제, 경구제, 외용제 등 200여 종의 다양한 형태의 일반/전문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시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한약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액제에 대하여 주요 기술분석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최근 진행되는 다양한 치료제개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품생산의 핵심이 되는 반월공장은 2005년도에 동사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4,500평 규모로 증축되어 운영되다가 2013년도에 멸실 후 2014년 8,000평 규모로 재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그림 8]. 내용액제(흡입액제), 외용액제(외용액제, 혈액투석제(액상)), 주사제(관류제, 수액제, 주사제) 제형군에 대한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인증을 확보한 것이 확인된다. 자동화 생산설비를 통해 1일 평균 59만 병의 수액제, 앰플제 등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며 약 97%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반월공장 전경

*출처: 대한약품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수액제 개요 및 특징

수액제는 수술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초 의약품으로서 환자가 경구로 수분, 전해질 또는 영양분 등의 섭취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체내의 순환량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체액 중 수분 및 전해질의 평형 장해를 교정하고 영양을 보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수액제는 아이브이 솔루션, 인퓨전 솔루션 등의 다른 형태의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약물투여 경로에 따라 경구, 비경구, 관장, 직장 투여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투여되는 내용물과 용도에 따라 수분 보급용, 전해질 보급용, 영양보급용 등으로 구분되며 모든 제품은 삼투압 효과를 통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수액과 함께 수액용 용기는 인체 혈관으로 직접 투입되는 약액을 담을 용기로 장시간 동안 용기 내면이 수액과 직접 접촉해 있어도 수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유리 용기와 달리 무균 등 고도의 품질조건이 요구되는 특수한 용기이다. 각 나라에서는 이러한 수액용 용기에 대해서 엄격한 품질규격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한약품은 수액제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77% 이상(2020년 반기보고서 기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1945년 초기 앰플수액제를 시작으로 1953년 유리병수액제, 1978년 Bottle Pack수액제, 1989년 PVC수액제, 1992년 ISPP수액제, 1998년 NON-PVC(One port, Two tube)수액제, 2009년 TPN & Double Chamber수액제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제품을 출시하면서 변천을 거듭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9].

그림 9. 수액제 용기의 개발 변천사

1950년 유리병수액제	1978년 보틀팩수액제	1992년 ISPP수액제	1998년 NON-PVC수액제	2014년 PP보틀 수액제

*출처: 대한약품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7. 대한약품 생산 수액제 및 특징

구분		제품의 특징	제품명
기초수액제(Basic parenteral infusions)	당질수액제	혈중 K농도 조절 및 수분, 칼로리 보급용	대한20%포도당주사액
	단일전해질수액제	수분, 전해질 보급용 등장성 기초 수액	대한 멸균생리식염수
	복합전해질수액제	ECF 보급 및 칼로리 보급에 적합한 복합 전해질 수액	대한하트만덱스주사액
영양수액제(Nutrient parenteral infusions)	-	TPN 조제에 최적화된 종합아미노산 영양수액제	아르믹스주
특수수액제(Special parenteral infusions)	-	혈액대용제	파티마솔주(F/S)

*출처: 대한약품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현재 동사가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200여 종의 수액제는 기초수액제, 영양수액제, 특수수액제 제품으로 구분되고 이들은 함유 성분에 따라 당류, 전해질, 복합, 용해제, 영양수액제, 특수수액제로 세분화하고 있다. 제품의 특징과 대표 제품명은 [표 7]과 같다.

■ 연구개발 현황

연구개발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하는 대한약품 중앙연구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은 크게 제제연구팀, 제품연구팀, 연구기획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의약품기술·제형 연구, 신규 제품 개발 연구, 특허관리, 신규과제 기획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개발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며, 최근 이루어진 연구개발실적 및 향후 연구개발계획은 [표 8]과 같다. 대한약품은 과거 제품개선을 위한 수액BAG 보호기제 개발, 소염진통 주사제, 복합비타민제 등의 제네릭 제제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골다공증과 부갑성선기능항진증의 제네릭 치료제 연구가 활발하게 추가되는 등 연구개발분야를 다양화 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다.

표 8.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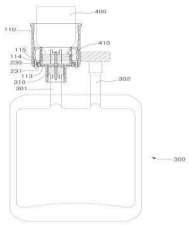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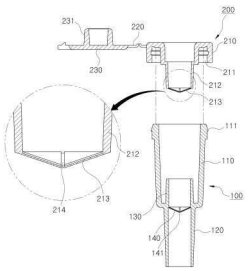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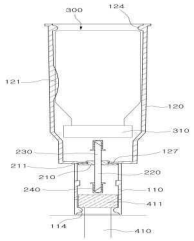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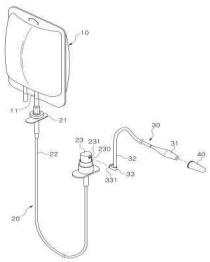
구분		연구과제	용도 및 특징	연구시작일	진행단계
의약품	제품개선	수액백 보호기제	수액 BAG 보호 오버파우치	2016 년	특허등록
	제네릭	소염진통제 주사제	통증치료	2017 년	제제연구중
	제네릭	해열진통소염제(주사)	해열진통소염	2017 년	제제연구중
	제네릭	복합비타민 주사제	비경구 멀티비타민 보급	2018 년	제제연구중
	제형개선	키트주사	감염증 치료	2018 년	개발완료
	제네릭	미량원소 경구용제	필수미량영양소 보급	2018 년	개발완료
	제네릭	퀴놀론계 주사제	감염증 치료	2018 년	제제연구중
	국내 신규	해열진통소염제(주사)	해열진통소염	2018 년	제제연구중
	국내 신규	아미노산수액제	정맥단백영양 보급	2019 년	제제연구중
	제네릭	골다공증치료 주사제	골다공증 치료, 예방	2020 년	제제연구중
	제네릭	근이완제해독 주사제	근이완제 해독	2020 년	제제연구중
	제네릭	마취전 진정제	마치전 진정	2020 년	제제연구중
	제네릭	골다공증치료제	골다공증 치료	2020 년	제제연구중
	제네릭	비강세척제	비강세척용 점비액	2020 년	제제연구중
	제네릭	독감치료 주사제	A 형 및 B 형 독감치료	2020 년	제제연구중
	제네릭	천식치료제	흡인성 천식치료제	2020 년	제제연구중
	제네릭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	만성신질환 환자의 부갑상선항진증 치료	2020 년	제제연구중
의료기기	제네릭	접착성창상피복제	구강내상처 등 상처보호	2020 년	시제품연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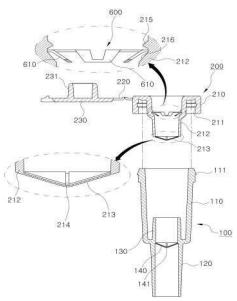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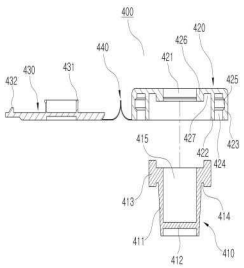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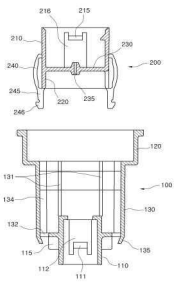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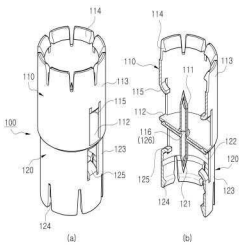
*출처: 반기보고서 (2020)

▶▶ 수액 및 수액용 용기 개발

대한약품은 수액 및 수액용기 관련 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약병소켓, 접속소켓, 안전캡, 수액키트, 주사기, 수액백 등 용도에 맞는 수액 및 약액 설계를 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그림 10]. 최근 등록된 특허인 약병 접속 소켓[그림 10, 하단]은 수액백의 포트에 약병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접속시킬 수 있도록 하되, 크기가 일정한 약병마개를 견고하게 지지하여 고정함으로써 약병의 크기에 상관없이 수액백의 포트에 접속시킬 수 있어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약병 접속 소켓에 관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약병 접속 소켓이 약병 연결체에서 약병의 상단 부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어 약병의 크기가 달라질 경우 사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수액에 혼합되는 약액이 담긴 약병의 크기에 대응하는 여러 종류의 안전 소켓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안되었다.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약병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접속 유닛이 안정적으로 지지 · 결합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된다.

그림 10. 수액 및 수액용기 관련 기술개발(특허 대표도)

용도	주사액 혼합 제조용 소켓	수액백용 포트	약병 접속소켓과 이를 포함하는 수액	비강 세척용 약액분사장치
설계				

용도	스파이크 이탈방지형 수액백용 포트	수액BAG용 안전캡	약병 접속 소켓	안전 소켓 및 수액 키트
설계				

*출처: KIPRIS 특허정보넷,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치료용 조성물 개발 및 특허등록

치료용 조성물과 관련해 최근 등록된 특허인 '갱년기 증상 완화용 조성물' 은 계피, 구기자, 대두, 갈근 및 회향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갱년기 증상 완화용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계피, 구기자, 대두, 갈근 및 회향 각각을 열수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을 재가공해 얻은 조성물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 부족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내분비 증후군의 일종인 갱년기 관련 인위적인 호르몬 투여를 기반으로 하는 에스트로겐 요법을 대체 하고자 고안되었다. 실험을 통하여 해당 조성물이 여성 갱년기 증상에 기존 방법 대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호르몬대체 요법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그림 11A (3점; 효과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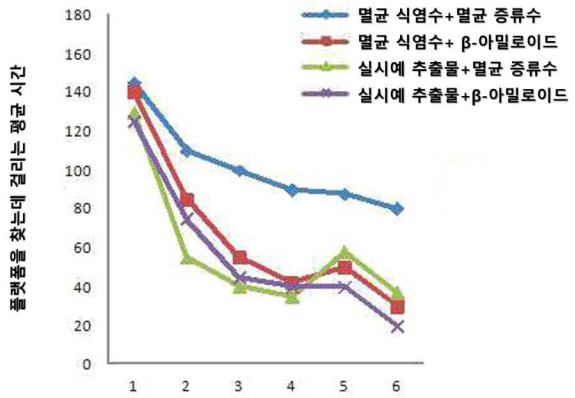
또한, 치료용 조성물과 관련해 2015년 등록된 특허인 '퇴행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감퇴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은 석장포, 백자인, 당귀, 복령, 감초, 구기자, 맥문동, 지황, 현삼 및 은행엽을 포함하는 천연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치매(Dementia)는 기억과 인지능력의 점차적인 약화 현상으로, 크게 혈관성 치매와 퇴행성 치매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퇴행성 치매는 β-아밀로이드가 포함된 노인반과 신경섬유다발이 형성되어 콜린성 신경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신경을 사멸시키는 퇴행성 병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퇴행성 치매의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은 콜린에스터라제 저해제 등으로 시냅스에서의 콜린 분해를 감소시켜 뇌에 작용하는 콜린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상기 약물은 매우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특허에서는 천연 추출 농축액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사용함으로써 퇴행성 치매에 의한 신경 손상 및 기억력 감퇴 현상을 탁월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그림 11B, 초록선]. 주로 천연물을 이용하여 질환 치료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특허등록은 완료되었으나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11. 치료용 조성물 관련 기술개발(특허 대표도)

A. 계피 등 추출물을 통한 갱년기 개선 효과

갱년기 증상	10일	20일	30일
열성홍조	1.50	2.25	2.40
우울함	1.82	2.40	2.92
수면장애	1.45	2.13	2.63
관절통증	1.13	1.88	2.25
피로함	1.35	1.93	2.33

B. 석장포 등 추출물을 통한 퇴행성 치매 예방 효과



*출처: KIPRIS 특허정보넷,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기술 장벽의 구축

특허정보넷 KIPRIS 인명정보 검색 기준 동사는 특허 등록 30건, 디자인등록 12건, 상표권 등록 173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중 특허는 약병소켓, 주사기, 수액백 등 수액제 관련 제품 개발과 치료용 조성물에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된다. 최근까지 등록된 주요 특허를 정리하면 [표 9]과 같다. 특히 수액백 제품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한 2016년도부터 수액제 관련 제품에 대한 특허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9. 주요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종류	명칭	권리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특허등록	약병 접속 소켓	대한약품	2018	10-1934373
특허등록	주사액 혼합 제조용 소켓 및 이를 포함하는 수액 제품	대한약품	2016	10-1657150
특허등록	위생안전 보증형 약병 접속소켓과 이를 포함하는 수액 제품	대한약품	2016	10-1639329
특허등록	퇴행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감퇴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대한약품	2015	10-1505870
특허등록	스파이크 이탈방지형 수액백용 포트	대한약품	2012	10-1150154
특허등록	수액백용 안전캡	대한약품	2012	10-1210281
특허등록	수액백용 포트	대한약품	2012	10-1168229
특허등록	약화사고 방지를 위한 주사액 제조용 안전소켓 및 수액 키트	대한약품	2011	10-1095961
특허등록	비강 세척용 약액분사장치	대한약품	2010	10-0979592
특허등록	복합생약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당뇨병 또는 당뇨 합병증의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	대한약품	2010	10-0956278
	이외 다수의 특허권, 디자인등록, 상표권을 보유			

*출처: 반기보고서(2020), KIPRIS 특허정보넷,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SWOT 분석

그림 12.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Strong Point) 안정적 수액제 매출구조와 연구영역 다각화가 가능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신생 제약사 대비 수액제 개발·제조에 특화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반월공장 수액제, 주사제 생산 및 전국 체인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며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신약 대신 제네릭 의약품 제품개선, 제형개선 등을 주요 연구 타겟으로 잡고 있어 제품상용화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연구과제진행 및 이를 통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동종업계 영업력과 비교하여 우수한 저변 인프라 및 자동화된 대량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대한약품의 강점으로 평가된다.

▶(Weakness Point) 수액제로 편중된 매출 의존도

대한약품은 80% 이상이 포도당 등의 수액제 전문의약품에 편중되어 있다. 일반의약품의 품목확대 및 고부가가치의 제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다분야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Opportunity Point)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정부의 제약산업 투자확대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로 이에 발맞추어 많은 금융투자 및 정부 차원에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제약기업들이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액제의 수요는 입원일 수 및 병상 수의 추이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구 고령화로 입원하는 노인들의 입원일수가 증가할수록 수액제 의약품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회환경적 변하는 준비된 기술인력과 생산시스템의 지속적 성능개선을 실현하는 대한약품의 기업 성장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Threat Point) 경기 침체의 불확실성 및 신규 제약사들의 도전

2020년은 예측할 수 없는 경기 불확실성과 정부규제정책 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중외제약과 대한약품으로 양분되던 수액시장은 CJ헬스케어가 참여하며 3파전으로 균형을 이루었고, 2018년에는 한국콜마가 CJ헬스케어를 인수하며 새롭게 수액 시장 참여를 선언하는 등 제약사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영업력과 자금력을 충분히 갖춘 경쟁업체와 기술에서 뒤처진다면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IV.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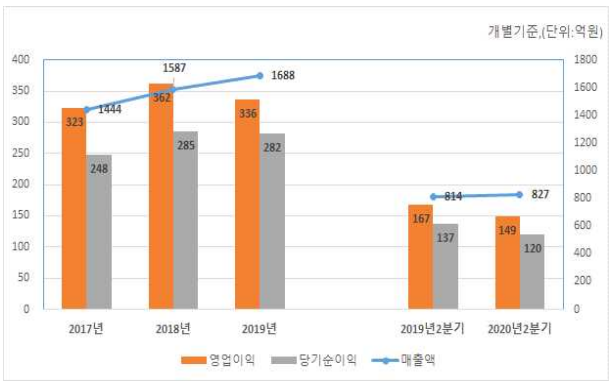
수액제 생산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의약품 제조기업

동사는 기초의약품인 수액제와 앰플제 등을 주력제품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염화나트륨액 등의 일반의약품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필수의약품이라는 안정적 매출 기반과 마케팅 강화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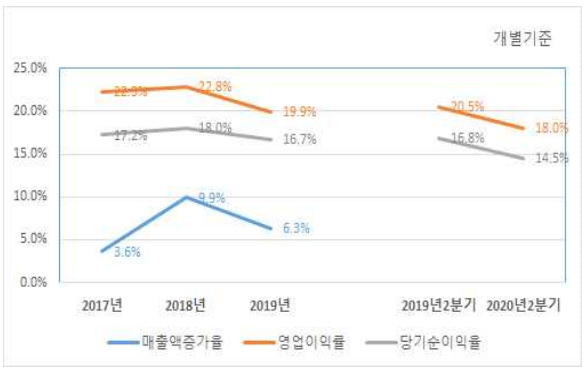
■ 수액제품 매출이 총 매출의 78% 가량을 차지

동사는 5%포도당주사 등의 수액제품 매출이 1,317.1억 원(총매출의 78.0%), V-K1 등의 앰플 및 바이알 제품 매출이 340.7억 원(총매출의 20.2%), 기타제품 매출이 22.8억 원(총매출의 1.4%), 위탁시험 등의 기타매출이 7.1억 원(총매출의 0.4%)으로 수액제품의 매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3.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개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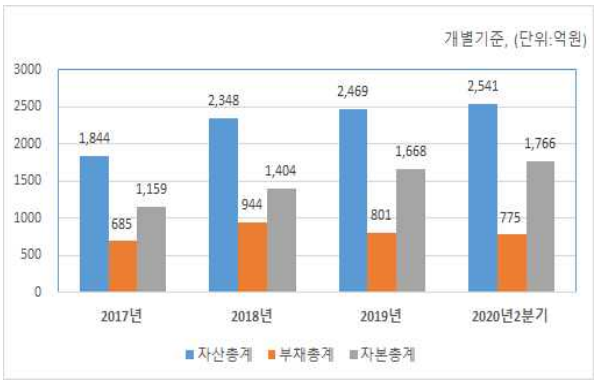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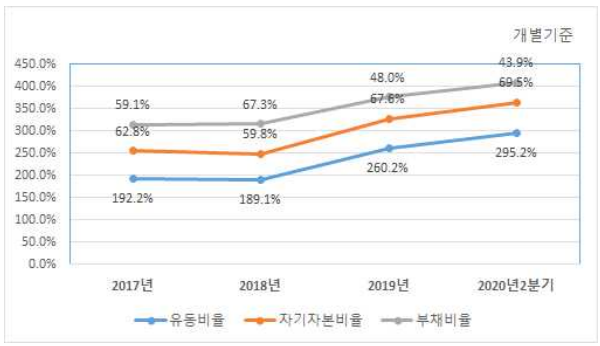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반기보고서(2020)

그림 14.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반기보고서(2020)

■ 매출 성장세 및 양호한 수익구조 유지

동사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활동으로 기존 제품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2019년 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1,688억 원을 기록하였다.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1,444억 원(+3.6% YoY), 2018년 1,587억 원(+9.9% YoY), 2019년 1,688억 원(+6.3% YoY)으로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수익성 측면으로는 2017년 1월 퇴장방지 의약품 91%상한가 제도의 시행과 수액백 제품 자동화 생산라인 투자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로 2016년 68.7%였던 매출원가율이 2017년 62.1%, 2018년 62.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2016년 15.6%였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17년 22.3%, 2018년 22.8%로 개선되었다. 2019년은 유형자산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로 매출원가율이 64.8%로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으나 매출액영업이익률 19.9%, 매출액순이익률 16.7%로 여전히 양호한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2020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매출 증가 및 양호한 수익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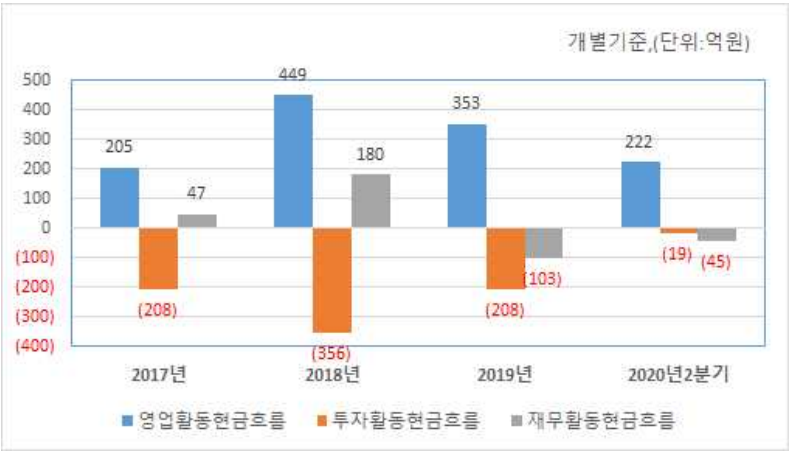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한 827억 원을 기록하였고, 수익성은 매출원가율의 상승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매출액영업이익률 18.0%, 매출액순이익률 14.5%를 기록하여 양호한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43.9%, 자기자본비율 69.5%, 유동비율 295.2%를 기록하는 등 산업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 양호한 현금흐름으로 유동성 확보

2019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353억 원을 기록하였고, 양호한 자금흐름을 기반으로 유형자산 취득 등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금성자산은 전기대비 43억 원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448억 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5.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개별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반기보고서(2020)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현대화된 생산라인, 탄탄한 영업망, 사업다각화를 통한 의약품시장 경쟁력 강화

대한약품은 현대화된 수액제 제조 시설과 탄탄한 영업력을 통해 내수시장을 굳건히 하여 안정적 매출을 지속적으로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액제 사업 이외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다양한 치료제 연구로 기술개발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해외수출 시장의 매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글로벌 마켓팅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수액제로 특화된 완제의약품과 전국 영업망을 통한 안정적 매출성장 전망

제약산업에서 제조업 부문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의약품 역시 인간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개발부터 임상, 인허가, 생산, 제조 및 시판 후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세심하게 이루어지며, 이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규제는 계속해서 유질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R&D 비중이 높고,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장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산업으로서 신제품의 개발 및 출시의 빈도가 낮기 때문에, 신규업체의 경우 보유한 제품에 대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약품은 산업 내에 오랜 업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꾸준한 연구개발, 제품상용화,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통한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있어 앞으로도 선도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규진입 벽이 높은 수액제 시장에서 우수한 시설 확보를 통한 우위 지속

전문의약품 가운데 수액제 시장은 고비용의 설비가 필요하고 개별 제품에 대한 단가는 높지 않아 신규업체가 진입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기업들은 정부의 시장 긍정적인 정책 등이 적용될 시 수혜를 입게 된다. 현재 대한약품은 8,000평 규모의 우수한 시설 구축과 함께 KGMP 인증, 수액제 자동화라인을 확보하고 있어 생산 및 품질 경쟁력의 우위 또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수액제 제품을 대량생산·보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원가 절감이 가능해져 영업 이익이 증가와 더불어 큰 증가폭은 아니나 꾸준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 급변하는 제약시장 환경에 전략적 대응 및 사업다각화 노력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큰 폭의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의약품의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약가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다소 정체되었다.

이런 시장환경 속에서도 대한약품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 성장의 배경에는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와 유통망, 다양한 정책변경을 통한 사용자 관점의 마케팅 전략 및 꾸준한 신제품개발 투자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한 것이 주요했음이 확인된다. 한편, 골다공증,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의 제네릭 치료제 연구가 활발하게 추가되는 등 연구개발 분야를 다양화하는 사업 다각화를 최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허등록된 천연물 이용 질환 치료제나 제네릭 치료제의 제품상용화 또는 기술이전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 낸다면 동사의 이익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이베스트 증권	Buy	40,000	2020.08.18
	• 순현금이 증가하는 모습 • 2021년 추정실적 기준 P/E 6.7배, E/B 0.9배. EV/EBITDA 2.9배 수준으로 저평가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0.10.)